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Consilium Internationale
Via Vittorio Putti, 4/int. 6 - 00152 Roma
Tel. +39 06.45471722 Fax +39 06.45473094
E-mail: ciofs@ciofs.org
www.ciofs.org

Circ. n. 33/14-20

Prot. n. 2981

Rome, June 4, 2017

성령 강림 대축일
전세계의 재속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은총과 위로하심으로 가득 차서...”¹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²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함께 듣는 사도바오로의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렇게 경험 하셨듯이 저희도 매일매일 성령의 은총과 위로하심으로 가득 차서 기뻐하며 새로워 집시다. 하느님은 저희로 하여금 이웃을 더 극진히 사랑하고, 임무를 더 잘 수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³ 재속프란치스칸의 성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저는 저희들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가정에서 그리고 형제회 안에서 저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저희를 개인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를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 저희는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분으로 인하여 저희는 저희 성소를 살 수 있고, 가정과 형제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며 “하느님의 성전에서처럼 성령님을 저희 안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로움”을 살아 갑시다.”⁴

1.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⁵

¹ 1 켈라노 11.26

² 빌립보 4.4

³ 마태오 5.13-14

⁴ LG 9 (Lumen Gentium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⁵ 요한 17.18

이는 다가오는 총회의 모토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저희가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으며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⁶ 우리가 여러 다른 종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라.”⁷ 우리들 재속프란치스칸들은 가정과 형제회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본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의 보고 속에서 하느님은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널리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가정생활

우리 존재와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누구나 가정 안으로 태어납니다. 간혹 일어나는 슬픈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각자는 가정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의 천상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사랑의 이미지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로부터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인간사회의 새로운 시민들이 태어나며 그들은 성령의 은총으로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느님의 백성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가정은 가정교회입니다.”⁸

가정교회로서의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 배우자를 향한 사랑, 일터에서의 사례를 통해, 또한 형제회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회 생활

우리의 형제회 - 특히 단위형제회-는 그 안에서 우리의 성소를 살아 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의

⁶ 창세기 2.18

⁷ John Donne: 명상 17, 1624, 토마스 머튼, 1955

⁸ LG 11

원천을 발견합니다. 형제회 안에서 자신을 열고, 우리의 삶을 형제자매들과 나눔으로써 참된 형제회를 만들게 됩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감추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서로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열어 보이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열려있는 형제회생활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회생활은 형제적 충고나 단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형제회 안에서 형제적 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화해와 함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화해가 없으면 진정한 형제회도 없습니다. 속죄하는 형제자매들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허약함과, 상처와 함께, 그러나 언제나 용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마치 다과회에 참석한 이들과처럼 우리의 관계를 제한한다면 형제회 안에 췌신이나 성령강림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세상으로 갖고 나아가 세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형제회를 생명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이를 우리의 이웃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형제회를 일깨우고 움직이고 형제회 삶을 췌신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편하게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오로는 경고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입니다.”⁹ 각자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이 이해는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역시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 성령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삼위일체적인 정신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접근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는, 성령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는 교회의 돌들입니다. 특히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의 영성을 본당 공동체와 여러 다른 교회 공동체에 정착시킬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창조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피조물을

⁹ 1 코린도 6.19

존중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자세로, 본당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의식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풍족하게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형제적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 모두에게 주는 관심, 그리고 우리는 세례성사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느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복음입니다.

사회 안에서

각각의 재속프란치스칸은 특정 국가의 시민입니다. 각자는 도시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사회의 공동선을 의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둔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넓은 공동체 안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섬기는 정신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좀 더 낫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좀 더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을 건설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올 수 있도록”¹⁰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물질적이건 영적이건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을 보호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느님의 영은 그들 위에 머무르셨습니다.¹¹ 하느님의 프로젝트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 가능한 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 하여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나 종교자유가 왜곡되어 잘 못 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을 때 이 상황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 역시 우리 성소의 일부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초대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인간의 재능이나 지식, 공동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움, 피조물 보호, 생명의 보호를 위한 찬미와 열매가 아니고, 그 반대로, 하느님을 향해 위로 향하는 대신 존엄성을 파괴하고 모르는 이들을 오류로 이끌며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며, 즉각적인 경험이나 일시적인 즐거움 등을 추구하며 이것을 문화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곳으로 하느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2. “회” (Order)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¹⁰ OFS 회칙 14

¹¹ 참조. 창세기 1.2

11월 로마에서 우리는 2014년 아씨시에서 열린 국제선거총회에서 시작한 주제의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OFS와 같은 국제적인 회(Order)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우리들, 전 세계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살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회”(Order)입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의장단만이 아니고, 국제형제회만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모든 가톨릭 형제회들의 유기적인 결합체”¹²가 “회”(Order)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공통의 임무는 우리 형제회들의 이 위대한 결합체, 영적인 가족만이 아닌, 조직의 실체이기도 한 결합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운영은 국제평의회나 국제의장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등급에 전부 해당되는 공통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 성사 생활, 봉헌 생활과 같은 “천국의” 일들 뿐만 아니라, 회합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적절한 양성을 하는 방법, 소통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하느님과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은 그 어느 쪽도 혼자 고립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경험, 다른 기술, 다른 관행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동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¹³을 주의 깊게 읽고 각 평의회와 형제회에서 토론하여 국제총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향후 3년 간의 하느님의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모두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전체 회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회”(Order)의 총봉사자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¹⁴ 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15회 재속프란치스코 총회에 당면하여 특히 그러합니다. 우리 만남의 목적은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며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형제회의 일치를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의 권한이 될 것입니다. 11월에 로마에서 만나 이를 위해 작업할 것이며 각각의 단위형제회로 돌아간 후에도 이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총회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제회로 돌아가 하느님의 선물과 우리 작업의 열매를 나누어 우리 회의 모든 등급과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 좀 더 진실된 프란치스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각 다른 등급의 평의회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형제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성소를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¹² OFS 회칙 2, 회헌 3

¹³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 3 차 임시 총회, 2014.

¹⁴ 2 켈라노 CXLV(145) 193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프란치스코회 새회칙의 4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1978년 6월 24일에 이 회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무상의 선물입니다. 이를 고마워하고 우리의 보배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배로 간직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 가둬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회칙을 살아있는 생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황 바오로 2세 성인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당신들의 회칙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살아 내십시오. 그 가치는 진실로 복음적이기 때문입니다”¹⁵ 이는 우리 양성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우리 삶의 기본 문헌으로 자주 읽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칙은 우리 삶의 일부,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3. "... 매일 성령님의 위로와 은총으로 가득 차..."¹⁶

성령님의 은총과 위로로 가득 찼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 분이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오고 우리의 보트가 갈아 앓을 위험에 처했을 때 놀라는 대신¹⁷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트에서 떠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우리 삶의 안전하고 익숙한 영역을 떠나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해, 물 위를 걷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¹⁸ 기적은 보트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보트 밖에서 일어 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을 채워 주신 성령입니다. 약하고 교육 받지 못한 이들로 교회를 건설하신 성령입니다. 그 분은 우리로 우리가 형제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 자신을 열어 드려 그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로 진정한 형제회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총회에서 그 분으로 우리의 모임을 채우시도록 합시다!

저는 이 편지를 개인적인 언급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임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성령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힘으로 저를 채워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진정한 총 봉사자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분은

¹⁵ 교황 요한바오로 2세, OFS 국제평의회에서, 1982년 9월 27일

¹⁶ 1 켈라노 11.26

¹⁷ 참조. 마태오 8.25

¹⁸ 참조. 마태오 14.29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굳건하게 하시고 신중하지 못할 때 제가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쇄신해 주실 수 있도록 전체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Come, Holy Spirit, come! 매일매일 당신의 은총과 위로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여러분들의 봉사자 형제

Tibor Kauser

CIOFS Minister General